

서해어업관리단, 어획량 축소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 참조기 등 어획량 축소(786kg)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1일(화) 전남 신안군 흥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 15:34,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방 약 41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한국수역에서 참조기 등 약 2,946kg를 어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786kg를 축소한 2,160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023. 11. 21.(화) 15:34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방 약 42해리(약 78km)	요영어 A호 (중국 자망어선)	98톤	15명	어획량 축소 기재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에서 어획하는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축소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과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560)
	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0-5571)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이병호 (061-240-7904)
	안전정보과	담당자	주무관	오세진 (061-240-7940)



나포 선박 사진



나포 선박 갑판 전경



초과 어획량 점검 사진